로컬플러스

## 익산 내달 5일 '농촌어린이 한마당'

익산시 농촌어린이한마당추진위원회 가 내달 5일 익산 함라초등학교에서 '제13회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부권 지역 농촌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등 또래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다. 농번기인 5월 바쁜 영농작업으로 자녀들과 멀리 가지 못하는 농촌지역 부모님들에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에겐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은 △고누, 쌍육놀이 △전통놀이 한마당 △천색다물(천연염색) △얼굴에 그림을 △물풍선을 던져라 △점토공예 △불이라 요술풍선 △솜사탕 △우리 밀 진빵만들기 △춤추는 로봇 △장명루 만들기 등 20여개의 다양한 체험마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경찰서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군산경찰서'는 26일 오전 '112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기념식'을 가졌다.

기존 112종합상황실은 20년 이상 노후돼 내부 시설과 장비가 낡고 각종 전선이 난립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함에도 예산등 부족으로 근무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산경찰은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지난 22일 공사를 완료했다.

새롭게 단장한 112종합상황실은 시스템 선진화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정보와 CCTV 영상검색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이용,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분석하는 등 범죄현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하반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군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1,736원으로 이에 반해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327원에 머물러 현실화율이 18.9%로 전국 평균 38.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7% 인상할 계획으로 가정용(1~20톤 기준)은 톤당 230원에서 290원으로 60원, 일반용은(1~30톤 기준) 330원에서 42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정비에 필수적이기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안정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업무보고는 성과·과제 중심으로"

## 정헌율 익산시장, "회의도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

정헌율 익산시장이 매주 간부회의 때 받던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버리고 보고가 아닌 성과와 과제 중심의 회의를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일 잘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땀과 노력이 합당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공정한 공직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 시장이 과거 '답습해 오던 일하는 방식'을 버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성과형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간부회의는 현안업무에 대한 지난 일주일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지시전달의 장이 아닌 쌍방향 토론문화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필요한 회의는 지양하고 간단한 메모보고나 SNS를 활용하는 등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주말 행사의 경우, 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등이 모두 배석하지 않고 최소한의 실무자 1명만 참석토록 지시했다.

정 시장은 "현재에 머물러 안일한 자세로 틀에 얽매여 있는 공직자는 더 이상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달성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전에 추진해 왔던 현안사업이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젠 시민이 공직자의 변화를 요구하고 요구에 따른 빠른 피드백을 원한다."며 "그 답은 모두 현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1,7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장인 나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새만금·한중관계 연구 교류협력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과 전북연구원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가 새만금 및 한중관계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새만금과 한중관계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나아가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새만금 및 한중관계 관련 학술연구 협력 및 지원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발굴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연구자료 공유 및 학술정보 교류, 인적 교류 및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종 총장은 "긴밀한 협력으로 새만금과 전북지역 발전에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좋은 결실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 내항 빗물저장시설 공사 재개

## 후속 공정 추진 시공업체 선정 완료…내년 4월 이전에 시험가동 계획

지난 3월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차질을 빚던 '군산 내항 빗물저장시설 공사'가 재개됐다.

군산시는 내항 빗물저장시설공사 후속 공정을 추진할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돼 내년 4월 이전에 시험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내항 빗물저장시설을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하고, 배수펌프장 시설은 연말까지 설치해 내년 4월중 시험가동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우기철 해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항주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하지만 유수지 주요 공정인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 시공업체의 채무과다로 인한 공사 포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는 당초 시공업체의 포기로 인한 체불자재 및 건설기계대금을 해소하고, 후속 공정을 추진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13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또한 우기철을 앞두고 올해 공사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내항주변 주요 우수관로에 비상펌프를 설치했다.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차질을 빚던 '군산 내항 빗물저장시설공사'가 재개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이 군산의 주요 관광지로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공사 포기로 조기완공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계획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후속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시, 중국 13개 우호도시와 국제교류회 개최

군산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교류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랴오닝 성 선양(심양)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류회는 군산시와 중국 내 13개 자매우호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도 산둥성 칭다오(청도), 2015년 광시성 베이하이(북해)에서 개최된데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우호도시간 바람직한 교류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려 군산시와 중국 13개 자매우호도시 대표가 한중FTA산업단지, 경제, 항만, 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군산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간 심도 있는 교류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국제협력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 발전적·실질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군산시 대표단은 이 기간 중 군산과 새만금을 중국에 알리고 한중 관광분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양시 관광국 및 중국관광공사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관광설명회에서 새만금방조제 및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 근대문화유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제관광도시 군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군산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주민 공감·소통 치안활동 펼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곁에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예방활동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치안활동 활약상으로 연일 화제다.

중앙지구대는 최근 도내에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예방 일환으로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주민의 곁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중앙지구대는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간다는 의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매일매일 경로당·아파트 등을 방문, 보이스피싱 근절에 全 직원이 발 벗고 나서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중앙지구대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내항 철길부지 대대적 환경정비 나서

군산시가 관광객 방문이 많은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내항 철길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내항 철길부지는 무단방치 된 선박과 온갖 생활쓰레기로 뒤덮여 이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인근에는 군산 대표관광지인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번 환경정비는 관광진흥과를 포함한 군산시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시는 주민계도를 통해 쓰레기 수거와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철거 후 노면정비와 함께 꽃을 식재했다.

한편 군산시는 내항 철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통해 기찻길을 활용한 포토존 등 추억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